

禪의 세계, 詩의 세계

「現代韓國禪詩」 「4인 시집」 펴낸 金達鎭翁

동양적이며 枯淡한 시세계를 보여주는 시인·불교학자 月下 金達鎭翁이 최근 팔십 고령에도 불구하고 번역서 「現代韓國禪詩」, 4인 시집 「샘물 속에 바다가」 등을 펴냈다. 괴테가 여든에 「파우스트」를 쓴 것은 유명한 일. 김옹은 지난 20여년간 동국역경원에서 대장경 번역사업에 종사해오면서 다수의 번역서와 시집을 내놓았다.

한국詩의 뿌리

“禪詩는 禪과 詩, 禪의인 詩, 또 일반적으로 禪을 중(僧)이라 보니 중의 詩, 이렇게 세가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지. 거기에는 현란한 기교가 없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읽고 또 읽으면 깊고 그윽한 맛이 우러나와요. 평범한 말들 가운데 진리가 숨어있는 거지요.”

지난 9월 출간된 「韓國現代禪詩」는 조선말기 鏡虛스님을 비롯하여 龍城 映湖 九河 滿空 漢岩 龍雲 曉峰스님, 지난 82년 입적한 鏡峰스님 등 9명의 선시 370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신라·고려·조선시대 38명 고승들의 선시 700여편을 모은 「韓國禪詩」(1985)의 후속편이다. 김달진옹은 5년여에 걸친 선시 편역작업을 통해, 한국시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우리 선시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두 권의 책으로 정리해놓은 것.

이들 책에서는 감성적 정서의 차원을 초월한 종교의 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자연의 찬미, 은유적하는 선승들의 모습을 대할 수 있다.

휘두르는 채찍은 수운향을 떨치고
안개비는 아득한데 길은 더욱 멀어라
고마와라. 언덕 길에 좋은 경치 있나니
물에 뜬 떨어진 꽃, 온개울이 향기롭다.
(고려시대 대각국사 義天의 ‘비 속에 말을 타고 가면서’)

한 생각만 깨달으면 티끌없이 깨끗해
철창의 밝은 달이 스스로 새로운 걸
憂樂은 본래 空이요 마음 안에 있거니
석가불도 원래는 예사사람이었네
(만해 韓龍雲의 ‘육중의 감회’)

이밖에 선시는 시대사를 옮기기도 하고 우국 충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悟道頌에 이르면 알 듯 모를 듯 종교적 신비를 체험하게도 한다.

“수많은 선시들 중에서 길고 장황한 시는 피

팔십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번역서 「韓國現代禪詩」와

4인 시집 「샘물 속에 바다가」를 펴낸

金達鎭翁의 글은 풍부한 한문지식과

시적 감수성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絶句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건 간결한 형식이면서 내용이 압축되어 응축미가 있기 때문이지. 또 典故를 다룬 시도 뽑지 않았는데 이런 시들은 주해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자기 세계가 적어요.”

그가 번역한 문장은 풍부한 한문지식,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이 어우러져 시적 언어로 맑게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샘물 속에 바다가」는 李聖善, 조정권, 崔東鎬씨와 함께 올 8월 내놓은 시집. 80 노인부터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세계가 담겨 있는 이 시집에서, 그의 시는 고전적 시세계의 원형을 보여주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보다 앞서 올 7월에는 20여년 전 번역했던 「장자」를 다듬어 「禪詩와 함께 엮은 莊子」를 내놓았다. 33편 각 편마다 선시를 곁들이고 장자의 무위자연 사상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僧俗의 세계 넘나들어

김달진옹이 펴낸 책들은 대부분 불교·시와 관련된다. 그것은 그의 지나온 生이 불교적 정신 세계와 시와의 만남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김달진옹은 190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그가 시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29년. 당시 순문예지였던 「文藝公論」에 梁柱東씨의 선고로 「雜詠」 등 몇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한편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온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倣新중학 4학년때 일본인 교사 추방운동을 주동하여 퇴학을 당한 후 고향의 계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당시였다.

김옹은 이에 대해 “어느날 밤 찢어진 벽지 사이의 초벌 신문지에서 뚜렷이 보이는 ‘佛’자를 발견하는 순간 섬광처럼 마음 속의 무엇인가에 강렬한 자극을 받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드디어 1933년 늦가을 집을 떠나 이듬해



노경에도 詩作과 國譯에 정진하는 金達鎭翁

봄 금강산 楡岾寺에서 머리를 깎고 禪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부터 불교는 그가 정진해 온 외줄기 학문이 되어 1936년에는 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한다. 佛專 시절은 정신적·학문적 성숙은 물론 많은 文人친구들과의 교류를 얻은 시기. 이때 만난 徐廷柱 등과 「詩人部落」 동인이 되었으며, 1940년에는 첫 시집 「靑柿」을 펴냈다.

해방 후 시전문지 「竹筍」 동인, 기자생활을 거쳐 낙향하여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김옹은, 1962년부터 그가 ‘내 인생의 전기’라 표현하는 東大 동국역경원에서의 번역사업을 시작했다. 이 역경사업은 후원이 끊겨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나, “이 때 나는 하루 20~30매 정도 번역하여 20여년 계속하였으니 이 사업이야말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력적인 著述작업

김달진옹이 대부분의 저작을 내놓은 것은 1950년대 이후. 앞서 언급한 책들 이외에 1954년 「孫吳兵書」를 시작으로 「古文眞寶」(1957), 불교설화집 「일곱가지 아내」(1964), 「法句經」(1965), 「莊子」(1965), 「寒山詩集」(1970), 「普愚 太古集」 「懶翁 太古集」 「義天 大覺國師集」 「知訥 普照國師法語」 등 역대 고승들의 문집과 어록(1972, 「한국의 사상대전집」 수록), 「佛敎說話」(1973), 「三寶讚」(1974), 普雨의 「虛應堂集」(1977), 서산대사 선시집 「큰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마음」(1983), 「金剛味經論」(1986), 「唐詩全書」(1987) 등의 번역서와 「큰 연꽃 한송이 피기까지」(1974), 「울베미의 노래」(1983) 등의 시집을 내놓았다. 김옹은 특

히 불경 중에서도 원시불교의 성격이 짙은 책들만을 번역해왔다.

“나는 석가의 언행록인 「阿舍經」을 제일 좋아해. 석가가 살아있을 당시의 이야기라 원시불교의 참맛을 느낄 수 있고, 석가의 거동이 더욱 생동적으로 가슴에 닿기 때문이지.”

요새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도 예전같지 않아 글쓰기가 어렵다는 김옹은 그래도 틈만 나면 번역에 매달린다고 한다.

“한동안 한국 漢詩를 번역해 원고지 1200매 정도로 마쳤는데, 이걸 책으로 낼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이것 말고도 「한국여류한시」와 「보조법어」 역시 한권 분량의 원고를 이미 다 써놓은 상태이며, 불소행찬을 「불타차리타」라는 계명으로 곧 간행할 예정이다. 불소행찬은 부처의 일대기를 아름다운 필치로 노래한 詩로 산스크리트 문학의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내년 봄 개인시집도 내놓을 것이라는 옆 사람의 말에 “이 나이에 무슨 시집이야...” 하며 가로막는다.

그의 시 세계는 사상이나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시적 발상을 자연경관에서 얻고 있으며, 썸네이꽃 하나에서도 우주를 느끼고 있다.

“내 나이 팔십이니 쓸만큼 쓰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네.”

일년 전부터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果川の 깨끗한 자연과 벗하며 사는 김옹. 순간순간 삶을 만나고 있듯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죽음과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노시인의 눈빛은 마치 가을하늘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 박경순기자